

<서평>

##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王大일 저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하경택<sup>1)</sup>

### 1. 책 소개

이 책은 저자가 여러 해에 걸쳐 교회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구약학자의 전도서 강해설교집이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 길지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경구(警句)의 형태로 되어 있어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전도서의 내용을 저자는 한 단락 한 단락 본문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강단의 글로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서가 12장이니까 두 개의 장은 한 장에 두 편의 설교가 실린 것이다. 전도서 2-11장까지는 각 장을 설교 한 편으로 담아내고 있지만, 처음 시작(1장)과 나중 마지막(12장) 부분에 대한 설교는 각각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서 구성에서 서두와 결말이 갖는 중요성에 걸맞게 이 책의 구성도 수미일치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 장의 제목들도 깔끔하다. 한결같이 제목들이 길지 않으면서도 책의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며 본문의

---

1)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중심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 마치 광고의 ‘카피’(copy) 문구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다. 이 책은 과연 구약학자는 구약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학자의 설교는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하나의 ‘모범’(model)이 된다.

## 2.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의 특징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문을 따라가는 성실함과 충실함이 돋보인다. 이 책은 전도서의 강해설교라는 부제에 걸맞게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며 본문의 의미를 풀어준다. 그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서 자체가 기준이 되어 본문에 대한 진술이 진행된다. 이것은 설교자나 해석자의 취향이나 의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되는 설교다. 이것은 청중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얻는 큰 장점이 된다. 설교자나 해석자에 의해서 임의로 뽑힌 본문의 내용이나 구성은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본문 선택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한 궁금증이나 의구심은 설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설교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설교자의 취향과 의도가 반영된 개인적 설교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저히 전도서 본문을 따라가는 이 책의 내용은 본문에 내재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설교에 그대로 전이되어 설교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 청중이나 독자들이 설교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전도서의 교훈과 메시지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나게 하는 것이다. 은은하지만 깊숙이 파고드는 말씀의 효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강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설교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점이다. 설교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근본적인

설교의 원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둘째로, 원어에 기초한 설명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예컨대,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인데,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24쪽 이하). ‘모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모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음’의 차원에서 ‘코헬레트’를 이해하면 글을 모으는 사람이 되지만, ‘모임’의 차원에서 ‘코헬레트’를 이해하면 집회를 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와 연관된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회중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코헬레트’는 ‘에클레시아’에서 외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전도서의 맥락에서 ‘코헬레트’를 이해하면 전도자는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예를 들자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개정 개역에서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에 기초하여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사역한다(353쪽 이하). 이것은 ‘키-제 콜-하아담’에 대한 번역이다. 이러한 사역은 본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본분’이라고 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번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사람의 됾됨이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본문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은 본문을 더욱 넓고 깊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셋째로, 해당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과 에피소드를 소개하여 본문의 현재화와 상황화를 돕는다. 매 장마다 저자는 해당 본문과 연관된 소재를 찾아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도덕경을 비롯한 동양고전이나 신곡을 비롯한 서양고전에서부터 신문기사, 명갈럼, 시집에 이르기까지 인용된 문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것은 저자의 인문학적 소양이

빛나는 부분이다. 이것은 저자가 신학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이나 이 시대, 더 나아가 현대적 사유와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독자에게 책을 읽는 재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2014년부터 바뀐 새로운 방식의 주소 표기법이 길을 따라서 매겨지기 때문에, 마을(洞)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길(路) 위에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김우창 선생의 지적에 대한 인용(115쪽 이하)이나 한중일 삼국의 밥상문화 가운데 젓가락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낸 내용(250쪽 이하)이나 보드게임의 경기법칙 변화를 통해 인생관의 변천사를 인식하는 질 레포(Jill Lepore) 교수 강의에 대한 소개(301쪽 이하) 등은 여러 면에서 독자들을 위한 저자의 해안과 친절함이 돋보이는 내용이다. 특별히 도덕경에서 인용된 “천장지구”(天長地久,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58쪽)나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 ‘군자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어울리게 보이고, 소인은 서로 같은 듯 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204-213쪽), 그리고 “천망회회”(天網恢恢, ‘하늘의 그물은 굵고 거칠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360쪽) 등의 격언들은 그 자체로도 전도서의 주제와 잘 통한다. 이러한 연결은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국제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넷째로, 구약본문에 대한 간(間)본문적 읽기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저자의 간본문적 읽기는 단순히 구약 본문 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본문과의 연결을 통해 전도서의 주제들을 기독교 신앙의 통합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3장 2-8절의 ‘때’에 관한 논의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킨다(93쪽; 요 7: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갈 3:4-5,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이어지는 3장 9-10절에 관한 설명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대한 인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31편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96쪽 이하). 또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고(전 8:11),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고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뒤집힌 세계를 목격한 전도자가 헛되다고 외칠 때(전 8:14),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허탄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242쪽 이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1-24). 결론적으로 저자는 전도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해 아래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서 살라’(We are not just living ‘under the sun.’ We are living und the Son)고 권면한다. ‘Sun’ 아래에서 살지 말고 ‘Son’ 아래에서 살라는 것이다(356쪽).

다섯째로, 지혜의 책 전도서에 대한 해설서답게 삶에 대한 저자 개인의 지혜와 통찰이 빛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14쪽). “늙지 말고 익어가자”(26쪽). “이해는 소통을 낳고, 오해는 고통을 낳습니다”(52쪽). “생명(生命)이란 ‘살라고’(生) 받는 ‘명령’(命) 아닙니까?”(62쪽)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73쪽). “들음으로 드림이 완성됩니다”(136쪽). “우리는 앞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203쪽). “땅 위의 길은 본래부터 나 있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길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275쪽). “인문(人文)이란 사람살이의 무늬입니다. 사람살이의 자취입니다”(291쪽)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214쪽; 356쪽).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불어 언어유희까지 곁들인 금상첨화의 격언들이다. 이것은 저자가 단순히 전도서를 해설하고 설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인생과 신앙의 의미를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사색가이자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제가 전도서를 읽었지만 이내 전도서가 저를 읽어가는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는 저자의 고백처럼(4쪽), 이러한 지혜적 격언과 통찰들은 자신의 전 존재와 삶으로 전도서를 읽어가고 있는 저자의 영성과 열심을 돋보이게 한다.

### 3. 평가

다섯 가지로 요약된 특징들은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다. 이 장점들은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저자의 특별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느낀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히브리어 음역이 괄호 안에 우리말로만 처리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우리말로 되어 있을 경우 누구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깨닫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말 음역에 히브리어 원문을 병기했다더라면 본문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가독성(可讀性)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책의 제목에 들어 있는 “전도자의 질문”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도서에 사용된 ‘헤벨’은 “한숨”(breath), “의미 없음”(meaningless/make no sense), “공허”(vanity/vain), “불합리”(absurdity) 혹은 “이치에 맞지 않는”(absurd), “이해할 수 없는”(incomprehensible)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의미심장한 용어이다. 이러한 번역들은 크게 ‘헤벨’을 “비어있음”(empty)으로 해석하여 중립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Wright)과 삶의 “불합리성”(absurdity)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Crenshaw)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사실은 ‘헤벨’이 단순하게 이해되지 않고 다의적 의미(multiple sense)를 가진 “다원적 개념”(multivalency)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도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무한의 절대부정”(infinite absolute negativity)을 통해 모든 것을 허무적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긍정적 결론에 이르도록 돕는다. 즉 쓰디쓴 약초로부터 독한 약을 추출해 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제안하는 무상한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3:14; 5:7; 7:18; 12:13)이며, 둘째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2:10; 3:12-13; 5:18; 9:9)이다.

전도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부조리하고 뒤엉킨 불확실성의 사회 현실 속에서 무한히 연약하며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가치의 진공 상태를 채워나가기 위해 몸부림 친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을 상실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뇌한 ‘경건한 의심과 탄식’의 사람이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이러한 ‘전도자의 질문’은 ‘복음서의 해답’으로 주어질 것이다(355 쪽).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여전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롬8:23). 전도자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것은 ‘해(sun) 아래’가 아니라 ‘아들(Son) 아래’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여전히 친근한 ‘도반’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1) 전도서의 ‘해벨’의 의미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를 참고하라. 하경택, “전도서의 ‘해벨’(חֶבֶל) 연구,” 『어떻게 전도서를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89-98.